



중간고사 대비 정리



이전 중간고사 문제

- 어떤 내용에 관해 특정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서술하시오
- 영화에서 시대 상황에 대해 비판을 어떻게 하는지 서술하시오
- 살인의 추억에서 사회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연관지어 설명한 3조의 생각을 정리하고 본인 생각을 쓰시오
- 이 세 영화의 여자 주인공들의 성격을 비교 분석하시오

* 모든 답변에는 적절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함.

1. DP



영화 정보

원작 - 김보통 작가의 'D.P 개의 날' 웹툰

Q1. 드라마 → 어땠는가?

재미있었다.

DP라는 존재 자체가 신선했기 때문에 '군인을 잡는 군인'이라는 설정이 더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추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 안에서 안준호와 한호열이 탈영병을 잡는 과정을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Q2. 해결이 없다는 것은 작품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가?

• 좋은 측면

- 군대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탈영병을 열심히 잡고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 심지어 군대 내에서 부조리를 당해 탈영하면 본인만 범죄자가 되고 가해자 병사는 엄청 큰 처벌은 받지않는 모습을 보며 더 와닿았던 것 같다.
- 드라마 시청자가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끔 하는 효과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 작품에서 군대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시청자들이 판타지물보는 것처럼 '현실에서 저런건 불가능하지. 군대가 변하나 어디.'하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몰입을 방해했을 것 같다. 현실이 어떤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안좋은 측면**

- 실제 군대 부조리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느낌처럼 ‘아.. 드라마에서도 역시 해결안되는구나..’ 이런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Q3. 이 작품의 배경은 군대인가? 군대문제인가? 사회문제인가?

크게 보면 사회문제인 것 같음.

방관자의 문제는 군대 내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사 영역을 불문하고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비리행위 등은 먼저 내부자들에 의해 목격된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방관자가 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고통이 그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군대 내에서의 인권 침해와 부정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군대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군대에서는 권위적인 구조와 체계, 그리고 엄격한 규율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Q4. DP에서 악의 평범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은 독일계 미국인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1963년 저작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본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고 아렌트는 주장했다.

**** 참고 ****

스탠퍼드 감옥실험

A4.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래도 되는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황장수의 모습에서 악의 평범성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데, 황장수도 사회에 나가면 편의점 알바를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청년일 뿐이다. 황장수가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드라마 'DP'에서는 이러한 악의 평범성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군대 내에서는 권위적인 구조와 체계, 엄격한 규율로 인해 평범한 군인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인들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빠져들어 다른 군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DP'는 악의 평범성이 군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조석봉도 안준호를 괴롭히게 된다.

- 이전에는 후임들을 괴롭히지 않았던 조석봉이 안준호가 입대하기 전에는 후임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준호가 입대하면서 그의 권위와 지위가 위협받게 되면서 그가 안준호를 괴롭히게 됩니다.

악한 몇몇 개인때문이 아니라 단체에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

Q5.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애가 괴롭힘당할 때 왜 보고만 있었냐" → 모두가 방관자?

신우석 누나의 말처럼 목격자가 보고만 있지 않았다면, 만약 누군가 가혹행위 사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렸더라면,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었다면, 그것이 일상적이었다면, 군대가 그렇게 가혹한 공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1990년대에도 군부대 생활관에는 가혹행위를 비밀리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소원수리함'이라는 것이 있었다. 화장실이나 복도 한구석에 쪽지를 넣을 수 있는 함이 있고, 간부가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원수리함이 제 기능을 하려면 신고자의 비밀유지와 신분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원수리함은 비밀유지는 물론 신분보호도 되지 않았다. 그 사실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어쩌다 누군가 소원수리함에 쪽지를 넣으면 그 내용은 금세 알려져 해당 소대에서는 푸닥거리를 했기 때문이다.

방관자의 문제는 군대 내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사 영역을 불문하고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비리행위 등은 먼저 내부자들에 의해 목격된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방관자가 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고통이 그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방관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가 두고 있는 '소원수리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이다.

드라마 디피는 지금의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지 되물게 한다. 우리 사회가 두고 있는, 방관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좋은 계기이다.

< 기타 >

- DP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DP가 인기있는 이유는 이야기가 추리나 범인, 탈영병을 잡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웹툰과 비교 >

[안준호, 한호열]

웹툰에서 안준호는 상병인데 드라마에서는 이등병이다.

한호열은 원래 없던 인물

드라마 서사 내에서 한호열과 안준호, 두 캐릭터의 합을 강조함으로써 2인조로 활동하는 DP의 특성을 부각하고, 캐릭터 흥미도를 돋우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원작에서는 상병 안준호(좌)와 일병 박성준(우)이 등장합니다. 원작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은 상병 안준호인데요. 원작에서 박성준은 안준호에 대한 서브 역할이 강하며, 2인조로 활동하는 DP에서 안준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준호가 느끼는 감정을 독백의 대사로 풀어 내면서, 주인공이 DP의 위치에서 느끼는 군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범구]

드라마의 박범구 중사는 한호열, 안준호와 끈끈한 연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원작에서의 박범구 중사는 드라마의 박범구 중사가 보여주었던 모습보다 상관으로서의 권력을 분명히 행사합니다. 또, 탈영병을 체포하려 몰두하는 모습에는 진급에 급급한 박범구 중사의 개인적 목적이 투영되기도 합니다.

<DP 개의 날>의 연재처였던 레진코믹스와의 인터뷰에서, 작가는 박범구 중사를 '제일 애착이 가는 캐릭터'이자 '찐 주인공(진짜 주인공)'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시즌2 연재시 박범구 중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나갈 것으로 예고하기도 했기에, 군탈담당관의 위치에서 박범구 중사만이 들려줄 수 있는 스토리를 더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석봉, 황장수]

드라마에서 가해자의 가혹 행위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적나라하고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황장수(신승호 님)와 조석봉(조현철 님)입니다. 헌병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보여줌으로써 군대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조석봉 일병은 드라마 내에서 이등병 안준호를 항상 챙겨주는 따뜻한 군대 선임이기도 한데요. 서사의 말미로 치달을수록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작에서도 탈영병들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드라마와 원작의 모든 에피소드들이 동일하지는 않은데요. DP와 탈영병들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드라마에서는 변주하여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원작 속 여러 대사들을 드라마 곳곳에 삽입하며 작가가 원작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드라마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항변할 수 없게 되어버린 탈영병을 대신해 ‘가해자’와 ‘가해자를 만들어 내는 조직’ 나아가 ‘피해자’를 ‘범죄자’로만 들어버리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_ 김보통

2. 보건교사 안은영



영화 정보

원작 - 정세랑 작가의 소설 보건교사 안은영

Q1. 드라마 → 호/불호

[호]

- 소설 → 영상으로 시각화 ⇒ 환상적인 분위기 잘 살림

이야기의 중심소재 = 젤리, 2부에 대한 흥미 유발 역할 잘 해낸 듯

주인공(안은영)의 이야기가 잘 마무리 되어서(?) 안은영이 변화/성장하는 모습(학교의 젤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자세?)

[불호]

안전한행복, 일광소독 애네 관계가 뭔지도 설명 안해줌

젤리 - 낯선 존재 → 개인적으로 몰입이 잘 안됐다.

산만하다

장르를 모르겠다

딱 잘라서 한 화에서 완결되지 않는 에피소드

젤리로 이목 집중시켰으면서 이게 뭔지도 설명 안해줌

호	불호
- 시각적으로 다 다르게 생겼음. - 원인도 다름.	- 젤리마다 명확한 특징이 보이지 않았음.
- 작품에 나왔음. - 인물의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	- 어디서 나오는거임?
	- 왜 하필 젤리임?

Q2. 표현하려는 내용과 표현 방법이 잘 연결되는가?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표현하려는 것과 잘 맞아 떨어지는가?

ex. 장난감, 젤리 등

-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드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데다 아이들을 지키는 어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났다.**
 - 젤리와 싸우며 자신만의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온 안은영, 다리가 불편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홍인표가 **힘을 합쳐 아이들과 학교를 지키는 것은 물론, 여성인 백혜민과 래디가 커플이 되는 모습을 통해 소수자도 조명한다.**
 - 원작자 정세랑 작가는 “선한 어른들이 아무 대가 없이 학생들을 지키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며 “또한 남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자주 해도, 함께 힘을 보태고 연결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 드라마에 처음 도전한 이 감독은 긴 호흡의 드라마를 만들며 내용 전개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평소 드라마를 즐겨 보는 편이 아니었다. 다음 에피소드를 클릭하게 하겠다, 시리즈물로

이어질 수 있게 열린 결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영상 언어를 연구하는 감독으로서 대사로 모든 걸 언급하지 않는다. 드라마를 즐겨 보는 이들에게 낯선 화법일까 걱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래서일까? <보건교사 안은영>은 도드라지는 소재의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큰 작품이다. 6회차 속 사건들이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서사의 고리가 약한 점은 치명적이다. 짜임새가 부족하다 보니 곳곳에서 물음표가 생긴다. 주요 소재인 젤리도 2회 초반까지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3회부터는 활약상이 떨어진다.

각 인물의 전사와 관계의 개연성이 부족한 것도 또 다른 약점이다. 선한 영향력으로 안은영의 충전기 역할을 하는 홍인표는 그 중요성에 견줘 존재감이 미약하다. 안은영과 가족처럼 친한 화수가 몸담은 ‘일광소독’과 그 대척점에 선 ‘안전한 행복’의 관계도 설명이 부족하다. 이 감독은 “안은영과 ‘안전한 행복’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면을 편집한 게 아쉽다”며 “(시즌2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들게 된다면) 그런 점을 한번 더 점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젤리가 아니라면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

Q4.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게 감독의 의도인지 체크해봐야 함.

Q5.  오히려 너무 생각을 많이해서 우리가 심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Q6. “개인의”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 안은영이 처음 → 끝 과정에서 바뀐 점 (개인의 성장 → 개인의 문제)
 - 옳아매는 존재에서 벗어난
 -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다함께 성장하는 느낌 (사회적인 구성처럼 보임) → 학교 문제로 단순하게 드러냄. → 표현방식: 젤리**
⇒ 기존보다는 신선하게 보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평범하지 않은 존재들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단순하지 않게 만들어서 젤리를 통해 조금 더 흥미롭게 드러낸 작품처럼 읽힐 수도 있음.
- vs) 폭력적인 것과 거리를 두고 드러낸 것은 좋은데, 학교라는 배경에서 갈등 자체가 단순해진다면서 이 작품은 평범하지 않은 존재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음.

3. 내부자들



영화 정보

장르 - 범죄, 드라마, 스릴러, 느와르

감독 - 우민호

원작 - 윤태호, 내부자들 웹툰 (완결되지 않음.)





“큰 절의를 위한 작은 부정이 어째서 부정이란 말인가?”

수도일보 논설위원 이강희

영향력 1위 보수신문의 논설위원
일국당 장필우 의원을 ‘정통’으로 키운 정본인
변화하는 판세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크다.
조폭 안상구와 은밀한 카톡선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란, 큰 의미로 생존,
국가의 생존, 국민의 생존, 나의 생존이다.”

일국당 국회의원 김석우

존재감 없는 3선 의원
정치적 도약을 위해 이강희 논설위원에게 은밀한 재안을 한다.



“난 썰매라는 놀이야, 전갈이라고!”

조폭 안상구

이강희 논설위원과 오랜 공생관계
미래자동차 비지금 자료로 거래를 하려다 패인이 되고, 복수의 칼을 간다.



“내게서 나쁜 자료가 안상구에게 갔고, 그는 패인이 되었다.
내 동이 후천한 이유는 순전히 내가 형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종로서 정보과 형사 최동희

미래자동차로부터 ‘뒷고물’을 받아먹고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우리가 찍는 사진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오해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리랜서 다류 사진작가 이상업

정마감 넘치는 기록자. 우연히 안상구의 복수 움직임을 포착하고, 밀착 취재한다.

Q1. 이 영화가 익숙했는가?

• 질문의 이유

: 우리가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느냐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

• 이야기

◦ 정치

◦ 오락 + 사회고발

◦ 부정부패

◦ 자극적

- 덜 자극적일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을까? 관람가능 연령대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 너무 성적인 장면들을 너무 오락으로 즐기고 있는게 아닐까

• 윤태호 작가 → 원래 사회고발을 많이 다루는 작가

◦ 이끼, 미생 등

• 성적인 장면같은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가?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만 남아있는지, 정치나 부정부패, 사회고발 등의 장면들이 남아있는지.
- 극단적으로 해보자. 어떤 사람이 정치, 부정부패, 사회고발 등을 강하게 받아들임. → 현실의 문제를 확인하게 되는 영화가 됨. 반대로, 오락으로 받아들였다면 상업 영화가 되는 것 뿐이다.
- 이런 장면들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가 고민이 되는 것.
- 만약, 중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서울시가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느낌과도 비슷할 수 있다. 다음시간에 이야기해보자~

Q2. 웹툰과 영화 비교

웹툰 작가 - 윤태호



웹툰에서는 김석우의 비중이 높지만 영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음.

완전히 바뀐 인물 → 사진작가 이상업

⇒ 인물이 바뀌는 것만으로 이야기가 바뀔 수 있나?

⇒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장훈(검사) ↔ 이상업(사진작가)

⇒ Q. 뭐가 쎄 달라졌는가

사진작가 - 취재 / 검사 - 공권력 →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

⇒ 이 사람들의 직업, 대하는 상대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자

[웹툰] 비리를 목격하는 사진작가를 내세운 이야기 ~> 이 사진작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영화] 검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장훈-안상구: 서로 winwin관계라서 결합한듯 (우검사는 야망이 있는 사람. but 그에 비해 좋지않은 출신)

이상업-안상구: 애네는 왜 결합한거? 이 부분을 봐야할 듯하다. - 이상업은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만화에서도 기사를 써서 곤란에 처하고 하는데 ~ ,

* **우연히** 이상업이 안상구가 복수하려는 것을 발견한 → 취재를 시작하게 된

* 영화에서는 우장훈과 안상구가 결합할 수 밖에 없는 탄탄한 배경 제시 → 몰입도 up

영화 - 짧은 시간 안에 등장인물 간에 결합/대립이 분명하게 보여야 함.

만화 - 만화에도 중요인물들이 더 배치되어 있지만 1권에서 끝나버려서... 아마 쪽 연재되었으면 중요 인물들을 더 해서 이야기를 끌고나가지 않았을까..

웹툰 - 악(부정부패비리관련인물)과 선(사진작가)의 대립

- 사진작가가 무언가를 계속 “포착”해가며 이야기를 끌고나가지 않았을까..?

영화 - 우검사는 선악 대비가 어려운 인물 - **목적이 같은 안상구와 결합**

영화 내부자들은 전체 다 강 내부자들의 이야기임

웹툰 내부자들은 비리관련집단의 내부자들과 내부자들 밖에서 지켜보는 선한 존재(사진작가)의 이야기

엔딩에서의 차이점 (일반판 ↔ 감독판:디오리지널)

일반판 - 후련하게 끝난 느낌.

디오리지널 - 짹. 관객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느낌. 전화를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

카메라를 응시하는 기법

롱테이크 기법 - 집중하게 만드는 →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일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관객에게 계속 어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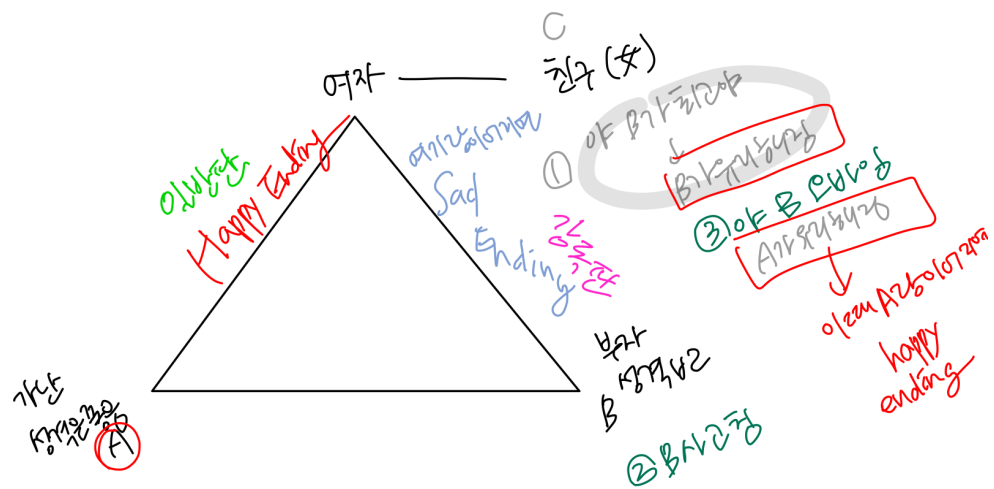
주인공이 있고 반대되는 존재가 있을 때

희곡 (베이스: 연극, 영화) → 주인공이 힘을 더 얻어 이김. ⇒ 주인공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결말을 따라감

비극 → 반대되는 인물이 스토리의 진행력에 힘을 가짐. 우리가 보는 주인공이 적은 비중을 차지

일반판 - 두 사람이 원하던 바를 이룸 ⇒ Happy Ending

감독판 - 야 ~ 뭔가 있네 찹찹 ⇒ Happy Ending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 영화가 관객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남김



? 만화는 왜 그렇게 끝났냐?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

윤택호 작가는 이야기를 끌고나가는 입장에서 재미있게 끌고나가자는 입장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상황을 차곡차곡 그려보자는 입장이었을 것.

그런데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뭔가 이 문제를 더이상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

But 영화는 복수와 관련된 이야기로 살짝 틀면서 그 안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변형해서 재미있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통쾌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때문이지 아니라, 저런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것일것

의미하는 바(무거운 메시지를 남겨둠 → 관객들에게 그 뒤를 말기는)를 나타내기 위해 감독 판을 낸 것이 아닐까 추측

4. 공동경비구역 JSA



감독 - 박찬욱

Q1. 영화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했는지?

재미는 모르겠고(조금 더 영화에서 소피장의 감정이 조금더 주관성을 가지고 그려지는게 있었으면 재미있지않았을까.... 이 사람의 심리가 많이 안그려진 느낌, 소피장의 시선에서 그려지는게 별로없음.) 영화에 필요한 인물임은 확실

Q2. '소피 장'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소피장 - 탐정 → 관객의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소피장 나름의 서사가 있긴하지만 재미를 줬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서사마저도 와닿진 않았던 것 같음.

Q3. 영화가 갖는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피장이 갖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 사람이 빠지면 의미가 줄어드는가?

소피장의 역할 -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야기를 보는 사람대신에 파헤쳐주는 것

궁금한 것을 남겨놓고 계속 보게한다

만약 영화가 결말을 먼저 보여줬다면? → 보는 사람들이 **과정**에 집중하게 만든다

Q4. 만약 소피 장이 주인공이 되면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소피장을 주인공으로 둔다고 했을 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소피장쪽으로 기울게 된다. 영화의 많은 부분을 소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채울 것이라고 예상됨.

군인들의 이야기를 잘 못그려내지 않았을까, 생각

소피장이 주인공이되면 너무 추리의 성격이 강할 것 같다.

주제의식(남북분단 현실, 비극)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음.

추리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음

소피 장 아버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로맨스가 추가되었을 것이다. (남주 세명정도에서 한 명...)

보조인물을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박찬욱 - 짹짹한 결말을 좋아하는 사람)

인민군 아버지를 상세히 다루게 될 것 같다. - 원작의 성격을 따라가면서!

내부자들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 소피장이 좀 더 수사하는 (관찰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Q5. 다음의 장면들이 의미하는 것은?

1) 총알으로 공기하는 장면

1. 호두도 총으로 깨는 장면처럼 물건에 양면성이 있다
2.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같은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

2) 사진 촬영하는 장면

1.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를 가림 - 우리도 뭔가 모르게 내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Q6. 성식은 왜 우진이가 죽었는데도 계속 총을 쏘을까?

- 성식은 월복을 권유하려고 하는거 아닐까 하면서 의심하는 상황 + 공기놀이하면서 잘 지내는 상황
 -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인 감각**이 남아있는 것
 - 모자를 바꿔쓰고 사진을 찍고 공기를 하고 하지만 결국 이데올로기적 감각이 남아있음. 그래서 배신감도 크고 사진찍을때도 사진들을 가린 것
 - 그들이 같이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으로 간다.

⇒[핵심] 이 영화가 이데올로기 상황속에 놓여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졌다가(휴머니즘) 이데올로기를 마주하고 파국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 것

만약 이 영화가 OTT로 간다면 단일한 플롯으로 가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촘촘하게 두 이야기를 함께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비중, 구도, 성격이 모두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음.



이데올로기란?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

Q7. 영화와 소설의 차이

소설에서는 심리적인 요소가 같이 가면서 일어나지만, 영화같은 경우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에는 조금 어려움.

영화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이게 실제 상황에서 가능한지 이런걸 따질게 아니라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분단된 상황에 놓여진 남북한의 젊은이들**”에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 이라 생각하심.

5. 살인의 추억



- 박두만

"애들 얼굴을 딱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이 딱 와, '직감'적으로."

1986년부터 경기도 화성에서 여성들이 살해당한 채 발견되는 일이 일어난다.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는 **'박두만'**(송강호), **'조용구'**(김뢰하) 형사다.

그들은 이 지역 토박이로, **'구시대적' 수사방식을 나타내는 인물들**이다.

실제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제대로 보존되지도 않고, 증거를 조작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등, 정황과 직감에 크게 의존해 수사를 하는 모습이다. **용의자가 진범인지 여부보다, 진범을 '만드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당시 경찰들의 **주먹구구식 수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두만의 이런 직감들이 아주 정확하게 작동할 때가 있기도 하다. 괜히 '무당눈 깔'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다. 두만은 연인인 '설영'(전미선)과의 대화에서,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지적장애가 있어 보이는 인물인 첫 번째 용의자, **'백광호'**(박노식)를 체포해 강압적으로 수사한다.

- 서태운

"싸움을 그렇게 못해서 어떡해?, 형사가."
"거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서 어떡해... 형사가."

두만과는 달리 **'태운'**이라는 형사는 **과학수사, 프로파일링 등으로 대표되는 '신세대적' 수사방식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철저하게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치밀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렇게 두 형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며, 사건을 수사하는 내내 서로 대립각을 세운다.

애초에 광호를 범인으로 정해놓고 자백이나 사건 정황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두만의 수사 방식에,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태운은 기가 찰 노릇이다.

- 신동철

새로 부임하게 되는 '신동철'(송재하) 반장은 이전의 반장과는 달리 사건을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런 점들은 태운의 수사방식과 결을 같이 하게 되고, 반장은 태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건은 두 건, 공통점은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여인들이 범인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거기에 태운은 실종신고된 여인 중에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고 실종된 여인을 주목하며, 같은 범인에게 살해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리고 태운의 추측은 적중한다. 실종된 여인은 결국 이 사건의 범인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 강간살인사건이 아니라, 치밀한 살인마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이라는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 권귀옥

권귀옥이라는 여경은, 극 중에서 강력반에서 근무하는 형사이지만 매번 커피심부름을 하고,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다.**

살인사건의 전조가 분명히 보이는데, 형사들은 추가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 시위진압을 하러 다 나가는 바람에 남은 병력이 없단다... **극 중 살인사건은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이 걸리는 밤에 일어난다.**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인데, **경찰병력들이 군부정권의 유지를 위한 병력으로 동원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어쩌면 이런 시대상황이 범인을 돕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견되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복숭아가 발견되는 등, 범인의 **악마와도 같은 행각들이 보인다...이를 본 두만은 뭔가 심경에 변화가 생긴 듯하다...**

본인의 수첩에 붙여놓았던 잡범들의 사진을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들이 지금 쫓고 있는 범인은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두만의 모습이다. **이때부터 두만의 행동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서태윤도 점점 성향이 변해감. (정확히 말하면 두만과 태윤의 성향이 변해감.)

"목격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자백만 받아내면 돼...
박현규 그 새끼를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야."
"너 많이 변했다? 응?..."

강압적인 수사를 상징하는 용구의 다리는, 이에 대한 피해자로 대변되는 '백광호'라는 인물에 의해 잘리게 된다...

두만의 연인인 '설영'을 주시하던 범인이, 중학교 변소에 관한 이야기를 태윤에게 해 준 '소현'(우고나)이라는 중학생으로 시선을 옮기는 장면은 소름이 끼친다...

그는 예전의 방식대로 박현규를 바라보지만, 그가 범인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듯하다... 작품은 그렇게 당시에 잡히지 않았던 범인을 향해 냉소적으로 묻는 듯하다. 그런 악행들을 저질러 놓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고 있느냐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고...

범인은 과시적인 성격

마지막 장면 - 범인 잡기에 실패한 형사와 실제 범인의 눈이 마주치도록

Q1.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재미있었는지? 없었는지?

처음에 영화만 봤을 때는 그냥 단순 재미있다 정도였는데, 영화를 보고나서 영화 안에 담긴 의미들을 찾아보며 더욱 더 재미있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해서 만든 영화이기때문에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형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시대적인 상황을 비판하는 모습을 담고 있음.

봉준호 감독은 **"나는 이들의 죽음이 진실로 슬프다. 그리고 범인뿐 아니라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모든 상황에 분노한다."** 라고 말했다. 물론 범인도 범인이지만, 그 당시 폭력적 수사를 했던 형사들이나 80년대 말 아시안게임, 시위 등 올림픽 같은 대외행사, 정권의 안위 같은 것이 중요했던 시대적 분위기, 사회가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범인을 못 잡게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영화에서도 보면 시위 진압을 위해 사건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장면 등을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하는 순간에도 이런 부녀자 살인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큰 행사, 정권에만 관심 있는 시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 연쇄살인사건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시대 분위기, 수사 방법 등과 연결 지어 제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Q2. 이 영화를 보고있을 때 나의 심정이 고정되어있었는지 변화했는지

변화했다.

영화 초반에 두만과 용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정황과 직감에 크게 의존해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용의자가 진범인지 여부보다는 진범을 만드는 데 더 주안점을 둔 당시 경찰들의 주먹구구식 수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수사를 왜 저렇게 하나.'는 식의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서태윤이라는 형사가 와서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백광호의 손을 보며 '이 손은 절대 매듭을 세 번이나 묶을 수 있는 손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백광호가 범인이 아님을 말할 때에는 '그렇게 수사해야지!'하는 쾌감이 있었다.

영화 초반에는 이렇게 형사들을 바라보는 나의 심정이 두만, 용구(주먹구구식 구세대적인 수사) → 잘못됐다, 답답하다. 와 태윤(신세대적인 수사) → 이게 바로 진짜 수사지, 이게 맞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범인을 미친듯이 쫓음에도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고, 태윤과 만난적이 있던 여학생이 사건의 피해자가 되며 태윤이 점차 초반의 냉소적인 모습을 잃고 어떻게든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걸 보면서 진짜 꼭 범인 좀 잡혔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냉정한 모습을 보이던 그도 미국에서 온 서류를 보고 '이건 잘못된 거야..'하며 낮이 나간 모습을 보인다. 간절하게 범인을 잡고자 했던 마음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던 것 같다.

형사들이 비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형사들이 범인을 열심히 잡겠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형사들을 응원하게 된다.

Q3. '살인의 추억'은 뭘까

그대로의 의미 → 범인이 살인을 추억하는

역설 → 반대의미 오히려 추억하면 안된다 → 살인의 추억 == 살인의 악몽

Q4. '밥은 먹고 다니냐'의 의미는 뭘까

송강호의 애드립

송강호가 실제 진범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으니

너같은 놈도 밥은 먹고 다니냐? 의 의미가 맞을 것 같다.

Q5. 연극 '날 보러와요'와 영화 '살인의 추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장르적 차원이 아니라 작품 자체에 대해 이야기 할 것)

비교

배경

연극

경찰서로 배경이 한정됨.

영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

시점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

중심인물

중심인물이 과학적 수사를 해나가자고 함.

중심인물이 비과학적 수사를 해나감.

용의자 배우

용의자가 다 같은 사람

세명의 서로 다른 인물 등장

→ 풍자한 것

관객들이 볼 때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연극 안의 형사들은 그걸 모른다.

표현방법

직접 vs 대사

세트가 제한적 → 다방, 취조실, 경찰서 등의 배경만 보임 → 영화에 비해 공간이 한정적인 느낌.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않음.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고 공간이 자유로워 진다. 이동이 자유로움

(추가) 연극이 한정된 공간에서 형사들의 심리적 상황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영화는 경찰력이 시위 진압에 더 비중을 두는 80년대의 시대 상황과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과 논두렁이 섞여 있는 화성의

공간적 배경과 같은 주변 배경을 함께 보여준다.

연극적인 표현

연극은 한 번의 기회뿐이다. 굉장히 민감한 예술이다.

연극은 한 번 세팅되면 수정하기가 어렵다. 일부러 조명을 다 켜지 않는다. 옆이나 뒤가 보이는게 아니라, 다방의 의자, 커피 이런 일부만 보이고 나머지는 '가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거만 보고 '아 사람들이 다방에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특정 소품 몇개가 있으면 장소가 변할 수 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사를 통해서도 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

공간 뿐만 아니라, 상황도 대사로 보여줄 수 있다. (ex. 000이가 죽었다. - 무대공간 밖(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의 이야기를 대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 누군가 그렇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것)

⇒ 이게 바로 '연극적인 표현'

연극에서 세 명의 용의자역 배우가 바뀌지 않는다.

범인에게 다가가지만 구분이 어렵고, 내적 고민에 빠지는 것

그렇다면 영화에서는 ?

사실적이고 생생한 장면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들을 바꿔서 따라가고, 용의자가 바뀌는 것 자체가 영화에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함.

첫번째 - 재는 아닐거같은디? 두번째 - 재일수도? 세번째 - 재네 ⇒ 생생감 살아남(영화의 장르적 특징)

영화에서도 무너지는 형사들 얘기가 나오지만 연극만큼 생생하지는 않음.

연극의 엔딩

급히 퇴장하는 박형사 아무 표정도 없이 이를 뺀히 보고 있는 김형사. 모차르트 곡이 흘러

나온다 갑자기 캐비닛 문이 열리며 강한 빛이 쏟아져 나온다 빛 속에서 서 있는 범인.

[김형사] 누구야?

[범인] 나야.

[김형사] "나" 가 누구야?

[범인] 나야, 나.

[김형사] 너 어디 있는 거야?

[범인] 난 네 속에 살아 있어.

[김형사] 아니야. 넌 가짜야.

[범인] 날 느껴봐!

[김형사] 아니야! (흐느끼다 울부짖으며 쓰러진다) 아니야--- 아니야!

암전

-끝-

영화 안에서는 송강호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찾아가보는데 이거보다 범인을 못잡았다는 절규하고 슬픈 내면이 잘 드러난듯함.

범인 - ‘ 난 니 속에 살아있어 ‘ → **실체는 없고 형사의 내면 안에만 있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영화 -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외적 갈등으로 드러냄

연극 - 내적 갈등으로 드러냄